

한민족의 숙원, 남북통일 언제 될까

남북간 대화 및 긴장완화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이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북미대화를 요구하며 대화 기간 중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핵화 의지도 있음을 밝혔다. 한반도 긴장 완화로 가는 첫 단추이자 큰 성과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남북관계

한반도는 예로부터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운이 부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의 임무 중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을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사로 많은 것을 얻어내 문재인 외교의 성공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세계를 위한 위대한 일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가 보낼 대미특사로부터 북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일본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심을 가지고 대북 압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은 물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통일의 어려움이 있다.



정의를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앞으로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진사년 9월 통일된다(격암유록)

통일이 곧 될 듯 하면서도 언제 될 지 안갯속이다. 격암유록은 한민족의 분열과 통일에 대해 말운론(未運論)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一國分列何年時(일국분열하년시) 三鳥吹鳴青鷄年也(삼조취명청계지년야) 又分何之年(우분하지년) 虎兔相爭水火相交時也(호토상쟁수화상교시아) 停戰何時(정전하시) 龍蛇相論黃羊用事之月(용사상론황양용사지월) 統合之年何時(통합지년하시) 龍蛇赤狗嘉月也(용사적구희월야) 白衣民族生之年(백의민족생지년)” 일국의 분열은 어느 해 어느 때인가? 닭이 세번째 우는 청계지년야라 하였으니 이는 1910 경술(庚戌)년으로부터 세 번째 닭(酉)이 든 해인 1945 을유(乙酉)년을 말한다.(1921 辛酉년,

1933 癸酉년, 1945 乙酉년)

또 다시 갈라지는 해가 어느 해인가? 범과 토끼가 서로 다투는 해라 하였으니 이는 1950경인(庚寅)년과 1951신묘(辛卯)년 사이에 물인 북(北)과 불인 남(南)이 서로 교전하는 때가 되느니라.

휴전은 어느 때인가? 1952임진(壬辰)년, 1953을사(乙巳)년에 서로 의논할 것인데 황양용사지월(黃羊用事之月)은 6월이다. 통일은 어느 해와 어느 때인가? 용사적구희월(龍蛇赤狗嘉月)이라 하였다. 진(辰)년과 사(蛇)년이 들어간 해이다. 적구(赤狗)는 병술월(丙戌月)이니 음력 9월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해가 2024년(甲辰) 2025년(乙蛇) 음력 9월이 된다. 물론 진사년은 매 12년마다 돌아오니 앞의 해에다 12년을 더하면

진사년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정도령에게 달려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4개국은 우리 민족의 앞날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 말은 자국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설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고 천문학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과연 가능할까? 모든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풀어낼 신의 한수가 꼭 필요하다. 승리제단 신도들만은 정도령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을 믿고 있다. 고르바초프를 세워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정도령은 남북통일도 당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정도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워 통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정도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분신으로 역사하는 정도령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룰 것이다. 아무리 격암유록이 그 때와 시기를 명시했지만 지금은 정도령이 마음대로 하는 시기이므로 통일은 오직 정도령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을 헤아리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9> “대상자를 사랑으로 이겨라”

대상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은 바로 자신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 속에 마귀가 없으면 원수가 있을 수 없고,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있는 것이다. “저 놈은 항상 내만 보면 미워한단 말이야, 저 놈은 항상 내 흉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자신 속에 마귀가 있는 까닭에 그 마귀가 상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 자기 마귀인 것이다. 그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이긴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겨본 자가 아니면 이기는 비결을 알 수가 없다. 이긴자는 어떻게 이겼느냐? 입을 봉하고 참고 견디기만 했는가? 아니다. 대상자를 사랑으로 이겼던 것이다. 대상자가 힘들어하면 힘든 것을 들어주고,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었던 것이다. 사랑에는 죽지 않을 마귀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미투운동 전개되어야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를 시작으로, 엘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후, ‘미투운동’은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알려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데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구세주라면 인류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투운동의 확장: '나'를 고백한다

나는 인류 역사 이래 지속된 잘못된 지식과 관습 등의 일을 깨는 근원적이며 분절적인 미투운동이 진실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인간완성과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종교와 학문의 이데아가 완성된다.

미투운동: 용기가 새 세계 연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부화되듯이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투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질서와 디스토피아, 속박과 관습의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알을 깨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미투운동’의 시작은 진짜 구세주의 출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구세주란 인류가 안고 있는 원인불명의 만성병, 불치의 상처인 증오와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 화해와 불사영생의 처방전을 내리는 천국의 명이다.

현재 거의 모든 인류는 기독교의 구세주로 불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후로 나눈다. 그만큼 서양 문명에서 예수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불린 이후 지구촌은 단 하루도 잔혹한 분쟁과 사건, 고통스런 질병과 죽음이 멈춘 날이 없었다는 점에 예수가 과연 구세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메시아 구세주는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감추어진 진실을 이렇게 고백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는데 6천 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성폭행)당했다고, 하나님을 점령한 마귀는 인간 속에서 ‘나’라는 의식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을 너와 나로 나누어 고통, 파괴, 전쟁, 죽음, 분열의 세계로 만들었다.

이제 인류가 ‘나’라는 의식 아래 쌓아온 모든 학문과 종교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채 나온 죽음의 학문이자 종교라는 것을 고백할 차례다. #미투!*

안병천 승사/ 승리제단 기획부장

5지역 3개부문 1등 석권



강춘희 5지역 부지회장이 활짝 웃으며 상을 받고 있다

5지역 돌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지역은 1월 1등을 차지하면서 3개부문 1등을 석권하더니 2월도 계속 돌풍을 이어갔다. 4지역이 1월에 이어 지

역 2등, 3지역이 1월에 이어 지역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시상식에서 “1등을 차지한 5지역을 중심으로 상을 탄 4지역, 3지역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신 나머지 지역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12년 동안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단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구세주께서 이 제단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날짜로 4차 21

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요절은 대상자에 대한 요절이다. 요절을 외우니까 신앙이 저절로 된다. 각성이 되어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천을 해야 변화가 된다. 우리가 변해야 외부 인사들이 오더라도 여기는 정말 신앙하는 곳이거나 하고 그냥 녹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고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결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2등: 37구역(구역장: 이영애)
- 3등: 49구역(구역장: 조건우)

- 개인 1등: 강윤민
- 2등: 이영애 권사
- 3등: 조건우 승사*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종말 때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사에 적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직관 영혼에
한층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